

통일운동의 역사를 기록한다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펴낸 노중선씨

구호미 10만석 무상제공을 결정' 했다는 내용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1988년 5월, "척박한 땅, 한반도에서 한 인간이 조국통일을 염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할복투신한 조성만(서울대 화학과)이 상기시키는 아픔, 92년 8월 소련 사할린에서 열렸던 제1회 통일예술제의 감격 등을 이 책은 생생하게 전한다.

"이 책이 통일문제의 본질과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운동의 내용과 방향을 가늠하는 데 참고자료로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

4. 19세대로 그 시절 민족문제에 눈을 떠, 가계를 아내에게 떠맡긴 채 통일문제 연구에 매달려 온 노중선씨는 "분단조국에서 지나치게 잘 사는 것은 민족구성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다 못한다는 말 아닌가"고 말한다. 말없이 자신의 일을 지지해주는 아내에게 이번 책의 서문 한 줄을 빌려 고마움을 표시한 그는 앞으로 남북 사이에 진행된 대화를 정리할 계획이다. 누구나 열람, 이용이 가능한 통일관련 자료실을 개설하는 것도 그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다.

— 박남정 기자

"통일문제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정당한 해답은 분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면히 이어져온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만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50주년이었던 지난 한해를 꼬박 연구실에 틀어박혀 우리 통일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에 매달려왔던 노중선(57,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씨가 최근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사계절)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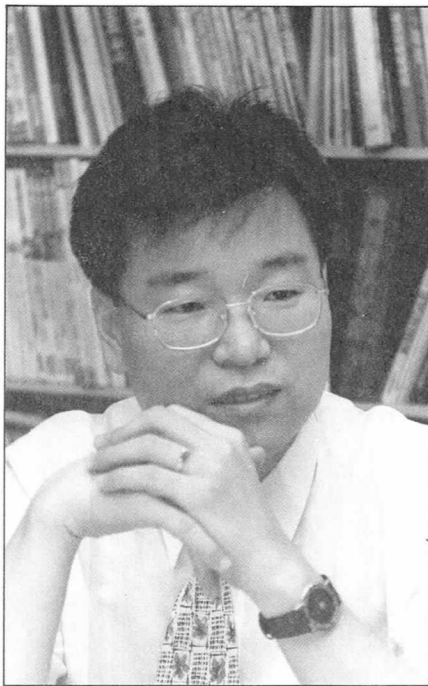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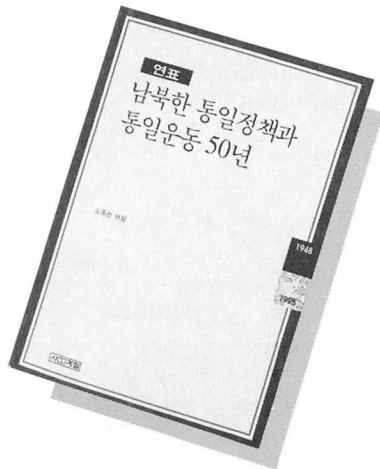
이 책은 1948년 남·북한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95년에 이르기까지 통일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일련의 논의와 움직임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남북한 정권당국이 제시했던 통일정책 및 제안들, 남북대화 및 남북관계 사항, 한·미 및 북·미관계,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기타 한반도 통일문제의 국내외 관련사항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정리하는 한편, 야당·연구소·재야단체·기업·학생·종교단체·개인 등 민간에서 이루어진 통일논의와 운동도 고스란히 기록했다.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배제하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료들의 원문을 발췌 인용해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충실한 자료집이자 연표로 통일정책 담당자나 연구자, 운동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참고자료다. 아울러 일반인들에게는 분단의 사슬을 끊고자 한 무수한 노력들을 되새기게 하고 통일의 절박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각성제로 기능한다.

1957년 북한이 '남조선 질량 농민들에게



배에 관한 77가지 이야기

《배이야기》 펴낸 채수중씨

쉽게 설명했다. 원고의 일부는 한진해운의 사보에 몇편을 실었고, 서울경제신문의 '이런 것 아십니까?'에 연재하기도 했다. 조선공업과 해운업의 동향과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환경은 아직도 열악하지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일반인이 배와 관련산업을 쉽게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선박이나 이물, 고물같은 전문용어는 쓰지 않았다. 배의 추진 장치인 스크류도 프로펠러라는 넓은 의미의 추진기관으로 대체 사용했다.

"우연히 관련업체의 한 직원이 내가 쓴 책을 들고 있길래 들춰보다 깜짝 놀랐 습니다. 첫장부터 빠르게 밑줄이 쳐져 있더군요. 허투루 책을 쓰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나날이 발전하는 조선·해운업의 성장에 발맞춰 개정, 보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진한 항목은 추가할 예정이다. 이 책에서도 드문드문 보이는 경제전반에 대한 관심을 잘 버려서 재계에 관한 글도 써 볼 작정이다.

— 최성일 기자

《배이야기》(지구촌)는 해운업과 조선업 종사자를 위한 교양도서"라고 자평한 채수중(37, 서울경제신문 산업1부 기자)씨는 '뱃사람'이다.

채수중씨와 배와의 인연은 18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서울에서 나고 자라 인하대 조선공학과에 들어간 것이 첫번째 만남. 대학을 졸업하고 《해사신문》에 입사해 조선·해운전문기자의 길로 들어선 것이 벌써 11년째에 이른 베테랑 기자다. 92년에는 한국해양대학의 승선 실습에 동행, 북태평양 연안을 항해하며 선상경험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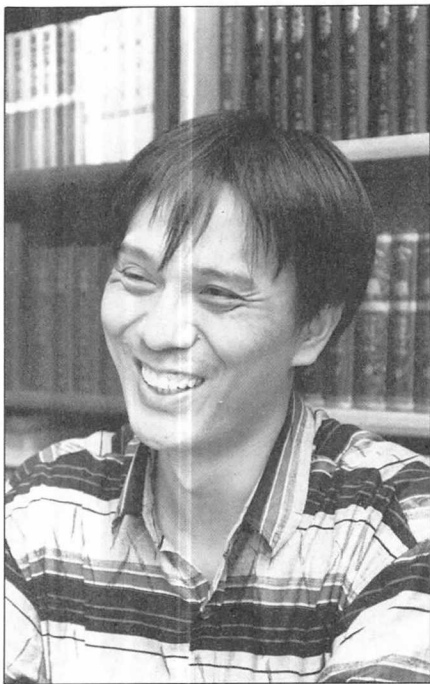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이 공동운명체란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뱃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해운회사나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배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현실이 이 책을 쓴 동기가. 배에 관한 입문서가 필요한 비전공 실무자의 권유도 책이 나오는 데 채찍질이 되었다.

어려운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글을 쓰는 데 가장 큰 걸림들은 선행연구의 혜택을 전혀 입을 수 없는 점이였다. 참고서적이 전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거니와 아는 수준이 기대이하이기 일쑤였다.

그래서 채택한 것이 철저한 취재방식이다. 항목 설정에서부터 혹시 빠진 것이 있을까 우려해 취재 때 출입하는 관련업체 직원의 조언도 들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77개 항목을 설정하고 취재에 들어갔다. 배가 뜨는 원리, 배의 크기·종류·속도·나이 등을 해양산업과 관련지어





다양하고 자유로운 시각으로 본 세상

《홀로 가는 사람은 자유롭다》
펴낸 이동하 교수

못하는 커다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2부에 수록된 5편 정도의 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표된 적이 없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산문집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책들이 대부분 이런저런 매체에 썼던 글들을 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 풍토에서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다.

다소 괴짜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이 산문집은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만큼 저자의 고민과 사유체계가 솔직하게 드러나 있고 읽는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인간의 문제와 시대정신을 놓고 보여주는 진지한 고민은 상당한 설득력과 공감을 이끌어낸다.

“중이책의 위기가 곧 문화전체의 위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단 문학이라는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사고하기보다는 인류의 문화생활 전체에 대한 깊이와 의미를 읽어내고 싶습니다.” 《홀로 가는 사람...》을 통해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문학적 고뇌와 세기말에 드러나는 문제의식을 유연하고 독특한 해법으로 풀어낸 저자는, 종말의 징후가 보이는 세상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한 명의 지식인으로 남고 싶어한다.

—허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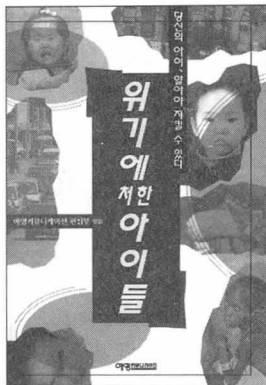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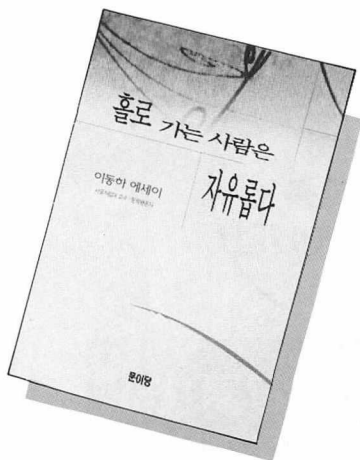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는 말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바로 고독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 집단을 만들고 그 행렬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구나.

산문집 《홀로 가는 사람은 자유롭다》(문이당)를 출간한 문학평론가 이동하 교수(40, 서울시립대 국문과)는 드물게 ‘고독과 친한 사람’이다. 그는 이렇다 할 문단의 계보나 파벌과 무관하게 현장비평가로 활동해왔고 그가 쓰는 평문들 역시 집단의 논리나 유행과는 무관한 개성있는 글들이다. 이번 그의 저서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고독해서 자유로운 한 인문주의자의 사유가 담겨 있다.

“집단으로 구획된 세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한 관심을 그때그때 적은 글들입니다. 허구에 가득찬 지식인 사회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내 고유의 시각으로 늘 관찰했고 모순이 느껴질 때 서슴없이 펜을 잡았습니다.”

저자의 이번 산문집에는 문학과외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회상, 종교에 대한 갈등 등 개인의 가치관을 고백한 글들과 한국문학의 정체성, 심각한 성차별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환경문제 등 현시기 한국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다. 후반부에는 철학·경제·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시대적인 시각으로 읽어낸 독서단상이 수록되어 있다.

“철저히 홀로가는 사람의 시각에서 쓴 책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홀로인 사람은 자유와 성취도에 있어 집단이나 주류들이 맛보지



아이들 문제 학교폭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

예영커뮤니케이션 편집부/신국판/352쪽/7,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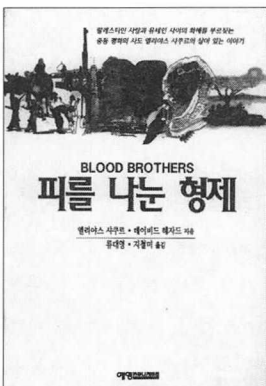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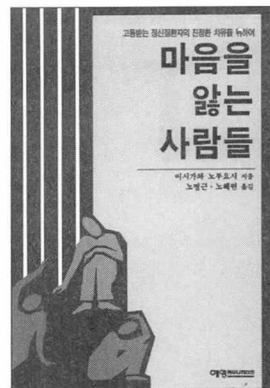
‘내 아이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하는 정신적·육체적·문화적 고통과 위협을 짚어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 보고자 기획된 책. 낙태에서부터 시작해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충분한 사례와 자료를 통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일본 정의로계의 양심 이시가와 노부요시의 생생한 체험과 증언

마음을 앓는 사람들

이시가와 노부요시/노명근·노혜련/신국판/248쪽/5,500원

정신병에 관해 무지, 편견 또는 무관심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는 책. 불우하고 소외되고 부당하게 취급받으며 격리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그들을 돕는 것은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벽이 없는 치료소’ 즉 개방된 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중동평화를 위해 헌신한 한 사도의 이야기 피를 나는 형제

엘리아스 샤쿠르·데이비드 해자드/류대영·지철미/
신국판/288쪽/6,200원

전쟁의 화약고라고 일컬어지는 중동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으며 또한 쫓겨나야 했던 엘리아스 샤쿠르의 살아 있는 이야기.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을 똑같이 깊이 사랑한 그의 삶은 “적의와 충돌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평화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해 준다.

출판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출판문화사업에 참여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을 찾습니다

모집부문

- 편집장 / ○ 명 / 4년 이상 경력자
- 편집장 / ○ 명 / 컴퓨터 분야 경력자
- 교정·교열 / ○ 명 / 1년 이상 경력자, 재택근무 가능
- 출판영업 / ○ 명 / 서점, 총판 유행업자
- Mac 편집 / ○ 명 / 1년 이상 경력자
- 북디자인 / ○ 명 / 2년 이상 경력자
- 홍보·광고 / ○ 명 / 경력자
- 경리·비서 / ○ 명 /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마감 96년 7월 1일)
- 2차 면접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각 1부

기독교인에 한함. 이력서 상단에 응시부문, 연락전화번호 기재

예영커뮤니케이션

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93 장충빌딩 B동 3층 T.267-0161~4 F.267-0165